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 약화(Trade Unions in Decline)는 비단 조직을 하락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성, 사회·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경제위기와 각국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기술진보와 맞물려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조의 약화와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기존 노조 체제로는 늘어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고, 이들 역시 기존 노조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을 중심으로 출현한 '새로운' 운동조직은 기존 노동조합의 '오래된(혹은 낡은)' 체제와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이 아닌 광장에 모이고, 투표용지가 아닌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한다. 임금과 노동조건 같은 공장 안에서의 의제만이 아니라 경제·정치·사회적 불평등 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요구안을 만들어 지배계급을 향해 목소리를 낸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기존 노조는 여러 다른 잠재적 동맹 중 하나로 간주되긴 하겠지만 복잡하고 변화가 느린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행위자들이 노조의 역할을 잠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조직노동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은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인가?

이번 호 기획특집은 사회운동과 조직노동(Social Movements and Organized Labour)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과 오래된 노조운동 간의 상호관계를 이론적 논쟁과 남유럽 국가의 사례(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운동, 포데모스(Podemos) 운동이 등장 하였던 스페인에서는 크고 작은 도시들의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자율관리 방식이 운동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진보한 기술을 효과적인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면서 저항성과 민주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반면 가라앉는 배의 선장 이미지로 남아 있다고 평가되는 조직노동은 기존의 레퍼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운동의 주된 요구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노조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통적인 에너지 집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앞세우는 등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노조 내부 민주화와 리더십 쇄신,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 양식 채택 등과 같은 혁신의 필요성과 지난 시기 영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탈리아 사례는 전국단위 노총과 상대적인 급진노조, 그리고 노조라는 제도 밖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 간의 경계와 비경계의 동학을 보여준다. 전국단위 대표적인 노조들은 입법 로비, 공동정책 결정, 단체교섭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불안정 노동자들 조직화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합형성에 소홀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급진성향을 띤 노조 활동가들은 기존 노조 조직체계 안에서 파업과 같은 전통적인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들 불안정노동자를 대표하려 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노조라는 제도 밖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복지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불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자들이 기존 전국 단위 노조들과 별개의 역량을 갖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노조에 대한 비판은 커졌다. 노조는 일부 이들을 조직 내로 포섭하거나 연합을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불안정성을 둘러싼 운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노조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안정성 확대와 같은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을 넘어 노조운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자클럽(Workers' Clubs)의 활동, 폐업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경영하여 사업 활동을 재개시킨 사례, 협동조합 설립의 활성화 등과 같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 외식서비스, 청소, 택배 등 기존 노조의 영향력이 약한 부문에서 조직된 불안정 노동자 노조(PWU)는 기존 전국 단위 노조에 참여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과도 적극 연대하면서 집단행동의 질적 레퍼토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여전히 전통적 노조운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존 노조의 재활성화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한다.

이러한 남유럽의 사례는 한국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 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대표하고자 하는 범위와 의제를 더욱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또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미 조직된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해를 넘어서 생존과 생활 공동체인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사회적 정당성,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어떻게 대표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조직구조, 운영방식을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새롭게 조직되는 사회운동 조직은 '노조'라는 그 이름도 낡은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띤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주체들은 조직 명칭에서도 '노동조합' 대신 '유니온'을 사용하고, '공동성명(共動成明)'과 같은 아예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빨간 조끼' 대신 같은 색상의 후드티를 입고, '단결·투쟁'보다는 '투명·소통' 구호를 즐겨 사용한다. 광장에 모이고 SNS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대표의 방식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대표하고자 하는 것이 물질적 분배만이 아니라 그 분배를 결정하는 정치과정을 포괄한다는 점일 것이다.

셋째, 노조운동이 어떻게 사회운동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노조운동을 사회운동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레퍼토리를 채택하면서 사회적 필수 요구인 좋은 일자리, 안전, 의료, 주거, 교육, 문화, 기후, 생태 등에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제들은 전통적인 노조의 투쟁과 사회적 시민권 확장을 통해 역사적으로 보장되어 왔던 것들이다. 단지 도구적인 동맹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동맹으로서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사회운동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노조운동(unions in social movements)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unions as social movements)이 필요한 이유다. **KLI**